

2025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에베소서

메시지 13

사랑 안에서와 빛 안에서의 행함

성경: 엡 5:2, 8, 요 8:12, 요일 4:8, 16-17, 1:5, 시 119:105, 130

I.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 엡 5:2.

- A. 번제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레 1:3, 9, 요 8:29).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는 생활을 하였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요일 4:16-17).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로서 신성하게 부요해진 인성 안에서 또다시 이 땅에서 사시는 것이다(출 29:18, 25, 고후 2:15).
- B. 에베소서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인 사랑 안으로 이끌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신성한 사랑의 달콤함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려서, 그 결과 그리스도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 엡 5:25.
 - 1. 사랑의 상태와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 엡 1:4.
 - 2.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뿌리를 내리고 건축되기 위해 터를 잡는다. 이 사랑은 우리가 실질적인 방식으로 깨닫고 체험한 신성한 사랑이다 — 엡 3:17.
 - 3. 그리스도 자신인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지식을 초월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체험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엡 3:19.
- C.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種)이 된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 — 요일 4:8, 16.
- D. 우리가 신성한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며 이 신성한 사랑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삶으로써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 — 요일 4:8, 16, 1:3-6, 빌 3:10 상.
- E.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을 산출하셨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 — 요일 4:19-21.
- F.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십자가에 두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타고난 사랑의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매우 쉽게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다.
- G. 우리는 홍수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고 떠밀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 신성한 사랑은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와 우리가 그분을 향해 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고후 5:14.
- H. 형제 사랑에 대한 계명은 옛 계명이자 새 계명이다.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 계명을 갖기 때문에 이 계명은 옛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노정에서 이 계명은 거듭해서 새로운 빛으로 떠올라 밝게 비춤으로 새로운 깨달음과 신선한 능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다 — 요일 2:7-8, 3:11, 23, 비교 요 13:34.
 - 1. 주님의 계명은 다만 명령이 아니다. 주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영과 생명인 그분의 말씀이다 — 요 6:63.
 - 2.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 본질이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본질을 공급해 주어 우리가 그 본질에 의해 그분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한다.

3.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된 신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
- I. 교회생활은 형제 사랑의 생활이다 — 요일 4:7-8, 요이 5-6, 요 15:12, 17, 계 3:7, 엡 5:2, 비교 유 12 상.
 1.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엡 4:16).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고전 8:1 하, 비교 고후 3:6).
 2.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듭난 영은 사랑의 영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타락을 정복하기 위하여 불타는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 — 딤후 1:7.
 3.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표시이다(요 13:34-35).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된다(요삼 9).
 4.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혼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버리고 자아를 부인함으로 몸의 생활의 실행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 — 요일 3:16, 요 10:11, 17-18, 15:13, 엡 4:29-5:2, 고후 12:15, 롬 12:9-13.
 5. 우리는 세상과 그 쾌락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버려야 한다. 세상과 그 쾌락을 사랑하는 대신, 형제 사랑의 교회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오락과 행복이 되어야 한다 — 요일 2:15-17, 마 16:25-26, 시 36:8-9, 비교 딤후 3:4.
 6. 교회생활에서 형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나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없이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표현된다. 가난한 성도들과 물질적인 것들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생명의 은혜와 함께 그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 흐르고 그들 안으로 주입된다 — 요일 3:17-18, 마 6:1-4, 롬 12:13, 고후 8:1-7.
- J.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 사랑에 의해 습관적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표현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 요일 4:16 -18, 고후 5:10, 14.
- K.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또한 이 사랑 안에는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그분께 형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 — 요일 4:17-18, 비교 눅 12:46-47.
- L. 사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 고전 12:31 하-13:8 상.

II.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 엡 5:8.

- A.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빛의 내적 비춤은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릴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한다 — 요일 1:5, 7, 창 1:18.
- B. 이사야서 2장 5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 안에서 행하라는 부름이다. 이 부름은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자백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야곱 집아, 와서 여호와와 빛 안에서 행하자.”
 1.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의 신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도 하셨다. “악을 선이라 하고 /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 어둠을 빛에 두고 / 빛을 어둠에 두는 이들, / 쓴 것을 단것에 두고 / 단것을 쓴 것에 두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 사 5:20.
 2.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생명의 빛 안에서 행함으로(요 8:12) ‘빛 가운데서’ 우리의 묵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할 수 있다(골 1:12).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추고 다스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고 이 왕국은 어둠의 권세인 사탄의 왕국과 대조된다(골 1:13, 행 26:18-19).
- C. 하나님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들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영역이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그 영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하는 말씀이다 — 계 2:7 상, 시 119:105, 130, 요 6:63, 엡 5:26-27, 아 8:13-14, 사 66:2, 5.
- D. 말씀이 우리의 체험에서 빛의 영역인지 아닌지는,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태도와 상태에 달려 있다 — 비교 요 5:39-40.
 1.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며 긍휼을 구해야 한다 — 사 57:15, 66:2, 눅 11:34-36.
 2. 주님의 빛 비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존재의 모든 방이 열려야 한다 — 잠 20:27.

- E. 우리가 말씀을 통해 빛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방해물들과 장애물들을 처리해야 한다(눅 8:12-15, 마 18:35). 우리는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야 하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해야 하며, 나누어진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시 119:2, 비교 렘 29:10-13, 24:7, 32:39).
- F. 빛 비춤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긍휼을 주실 때마다,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의 빛이고, 그분의 나타남이 우리의 이상이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유익이다 — 롬 9:15, 행 9:3-4, 사 50:10-11, 민 6:25-26.
- G. 주님께 빛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다음 다섯 가지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빛 비춤을 원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간절히 주님 한 분만을 단일하게 추구하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한다 — 시 139:23-24, 빌 2:12-16, 대하 12:14, 16:12, 34:1-3, 시 27:8, 73:25, 눅 11:33-36.
 2.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며, 어떤 것도 보류하거나 숨기지 않은 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두어야 한다. 주님께 자신을 닫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데 전문가들이다 — 고후 3:16, 잠 20:27, 마 7:1-5, 눅 6:36-37, 41-42.
 3.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조망,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완전히 멈춘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올 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극히 단일하고 단순할 수 있다 — 눅 10:38-42, 요 11:21-28, 사 40:31, 마 5:3, 눅 18:15-17, 사 66:1-2.
 4.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빛이나 밖에서 말하는 그 영의 사역자들과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한다 — 행 22:10, 아 5:4-6, 고후 10:3-5, 11:2-3, 민 16:1-7, 33-39, 17:1-8, 비교 출 33:11, 14.
 5.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계속 빛 속에 살아야 한다 — 사 2:5, 요일 1:7, 히 9:14, 10:22, 마 5:3, 8, 14, 시 119:105, 계 1:20, 시 36:8-9.
- H. 우리는 빛을 만들어 내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에게 빛 비추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 사 50:10-11.
1.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불에 의해서는 영적인 길에서 전진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와 이름을 신뢰하며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2. 우리가 스스로 만든 빛으로 자신을 에워싼다면, 우리는 잠시 동안은 우리 자신의 불빛 안으로 들어가 행할는지 모르지만 결국 고통 가운데 누울 것이다 — 사 50:11 하.
 3.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 자신의 빛으로 대치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빛을 받아야 한다 — 요일 1:5, 요 8:12.
- III.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생활은 “여명의 빛 같아 /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잠 4:18) 이르러야 한다. 그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마 13:43).
- IV. 결국 새 예루살렘 전체는 신성한 빛의 발산체가 될 것이다. 오늘날 이 발산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없애는 왕국 백성과 함께 한다 — 계 21:23, 22:5, 4:5, 마 5:14.